

제3회 광주매일신문 축제·관광대상

광주·전남 콘텐츠 '관광·축제' 패러다임 바꾼다

종합대상 / 광주시장상 광주 동구청

'버스커즈월드컵' 대성공...글로벌 축제 도약

광주 동구청은 제 19회 추억의 광주 충장월드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임택정장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동구청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진행된 '추억의 광주충장월드페스티벌'에는 국내·외에서 60만 명이 다녀갔으며, 처음으로 선보인 '제1회 버스커즈월드컵 in광주'는 세계 각국에서 539개 팀(1천603명)이 접수하는 성황을 이뤘다.



국내·외에서 60만명이 다녀간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페스티벌'.

'나의 추억은 한 편의 영화다'라는 주제로 열린 충장 월드페스티벌은 컬러 콘텐츠인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광주를 비롯 ▲충장 월드퍼레이드 ▲세계음식·문화페스티벌 ▲유라시아 오페스트라 초청공연 등 국내를 넘어 세계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1회 버스커즈월드컵 in광주' 본선에는 총 97팀(국내 53·해외 44)이 참가해 4차례의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국내·외에서 높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기획부터 실현까지 해외 아티스트와 5천여명의 주민 등이 함께 만들어

낸 주민참여형 축제로 자리 잡았다.

도시 축제의 패키지화도 주목받았다.

광주미디어 아트페스티벌, ACC아시아문화주간, 국제교류의 날 행사 등 10월에 열리는 행사들을 패키지화해 축제 흥보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경제적인 효과도 컸다.

축제 기간 연계 프로그램으로 충장로 기준 유동인구 46%, 매출액 35% 증가

등을 비롯한 충장르네상스, 라온페스타

개최, 금남 지하상가 문광형시장사업, 충장로 스트리트 세일 행사 등을 통한 상

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줬다.

다른 자치단체와의 화합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 서구 시청 만들이 보존회, 남구

양림 헬로우 퍼레이드, 북구 각자 문화

의 집 놀이페 퍼레이드, 대전 부사 칠석

놀이, 진도 내드림 북춤 등 각 자치단체

대표 축제나 문화행사의 참여를 끌어내

호평을 받았다.

충장월드페스티벌은 세계축제협회

(IFEA World)가 선정한 '제16회 피

너를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대한민국

축제혁신도시상 등 3관왕을 받았다.

○오복기자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전남관광재단

지속가능 MICE 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앞장

전남관광재단은 올 한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MICE 산업 형태 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남 MICE 산업 유치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이건철 대표이사

우선 MICE 행사 개최 시 단체·법인 등에 규모별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펼쳐 올해 총 37건을 유치, 1억2천300여만 원을 지원해 1만5천94명의 국·내외 방문객을 이끌어냈다.

전남 MICE 산업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마케팅에도 주력했다. 전남 MICE 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국내·외 1만1천여개 관계기관 대상 온라인 홍보, 국내 200개소·국의 50개소 대상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홍보해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해외 관계자 초청 팸투어·MICE 박람회 참여해 바이어 대상으로 현장 상담 등 엔데믹 이후 전남 MICE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전남 MICE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협업 구축으로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확보했다.



전남관광재단 주관으로 열린 '2022 전남도 MICE 활성화 포럼'.

전남의 지속가능한 MICE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반 조성·시설 육성에 앞장섰다. MICE 실태 조사와 기초 통계 자료화를 추진, MICE 인프라 수요조사를 실시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남의 풍부한 자연·생태·역사·문화 관광 자원 중심 '유니크메뉴' 관리 등 회의·숙박 시설과 고유한 관광·체험 콘텐츠 연계한 전남형 MICE시설 육성에 앞장섰다. 전남의 22개 시·군 67개소 휴(休)미스 시설 지정 운영, 9개 시·군 개소 유니크메뉴 추천으로 전남형

MICE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전남관광재단은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해 전남 MICE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최근 3년간 국가 공모사업 유치로 MICE분야에 6억5천500만원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에는 ▲지역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1억3천500만원) ▲미스 미팅테크놀로지 확산 사업(2억1천만원)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3억4천5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전남 MICE 산업 발전 촉진·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다이기자

여행업 부문 최우수상 (주)다음투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새로운 여행 트렌드 입증

(주)다음투어는 지난 2008년 설립해 15여년간 광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여행업체다.



정현지 대표

다음투어를 이끌고 있는 정현지 대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국내 여행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에는 북구청이 편시터 북구 도약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 극복 힐링투어'에 협력여행업체로 선정됐다.

지난 6월 '맛과 멋 미향광주 맛보기'를 주제로 광주호수생태원, 환벽당,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등 힐링이 가득한 역사 관광 코스를 둘러보는 투어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다음투어는 틀에 박히지 않은 유연한 대응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참가

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기존 단체 여행 중심이었던 패키지 여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노멀(no-normal)', '웰니스(Wellness)' 등 여행 트렌드가 변화해 다음투어의 '고객 맞춤형' 운영 방식이 새로운 트렌드를 입증하고 있다.

이 여행사는 소규모 여행, 특별한 체험 등 국내 투어에 집중해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기존 고객들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틸 수 있었다.

종합대상 / 전남지사상 장흥군

정남진 장흥 물축제 '문화관광 지정 축제' 선정

장흥군 민선 8기 사령탑에 오른 김성군수는 취임 직후 물 축제, 통합의학 박람회 등 급격한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정남진 장흥 물축제 문화관광 지정 축제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김성군수

특히 지난 7월30일부터 8월7일까지 9일 동안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린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전국에서 58만6천여명이 방문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3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물축제는 '장흥, 물과 사람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졌다. 장흥군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축제에 역사와 문화의 색채를 덧입히는 데 공들였다.

개막 첫날 진행된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공예태후 호위 행렬을 재현한 역사 테마 프로그램으로 연출됐다. 고려 공예태후를 배출하며 장흥이란 지명을 얻게 된 역사적 배경을 모티브로 물싸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군민회관에서 출발한 퍼레이드 행렬은 관광객



'장흥, 물과 사람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열린 '정남진 장흥 물축제'.

과 지역민이 어우러진 가운데 신나는 물싸움을 벌이며 물축제장으로 이동했다.

매일 오후 2시 지상 최대 물싸움장에서 신나고 흥이 넘치는 물싸움이 펼쳐졌다.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은 워터볼 물풍선, 물폭탄 싸움으로 분위기가 이어졌다.

물축제의 야간 프로그램으로는 '워터樂풀파티'가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워터樂풀파티'는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준급 풀파티였다. 하지만 입장료는 없는데, 유명 DJ들이 대거 참여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여기에도 군민들의 참여도 축제 성공에 한몫 거들었다.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10여개의 자원봉사팀이 행사장 일원을 청소했다. 군수와 군의원, 지역 도의원에 군 공무원까지 합세한 청소 봉사로 축제 기간 내내 깨끗하고 안전한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물축제는 매년 행사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 올해도 유니세프 물부족 국가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다이기자

여행업 부문 최우수상 (주)광주홍익여행사

스토리·체험 접목 상품개발 공격마케팅 눈길

지난 1999년 설립된 (주)광주홍익여행사는 국내 및 해외여행의 개인과 단체 상품뿐 아니라 항공권 예약 및 판매, 비자 접수 및 발급 대행, 해외호텔 예약서비스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여행서비스 업체다.



정길영 대표

광주홍익여행사는 2020년 관광업계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후 2022년 엔데믹시대로 접어들자 이에 맞춰 발 빠르게 전환했다.

영·호남 화합과 교류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인트라바운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상품 개발로 스토리와 체험을 접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이다.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도권 팸투어도 추진 중이다. 수도권 거주 관광(여행)전문가, 기자 수, 파워블로거, 여행 작가 등을 초청, 광주 북구에 분포된 문화관광 명소를 널리 알리고 지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



'국제도시광주'를 위해 팸투어를 추진중인 광주홍익여행사.

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실현했다. '국제도시광주'를 위해 신남방국가인 베트남 응에안성과 교류 협력 등 해외관광객 유치, 신규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도 추진했다.

'메이퀸 5·18 팸투어'도 눈길을 끈다. 광주 북구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명소를 알리고 언론 홍보를 통해 지방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지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내 인트라바운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 수용태세 확립과 포스트코로나 대비 젊은 층과 일반 개발여행 및 가족 관광 중심의 관광환경 트렌드 변화가 예상된다. 다양한 계층에 맞는 여행사 중심의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정길영 광주홍익여행사 대표는 현재 (사)광주관광협회 회장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여행업 부문 최우수상 (주)다음투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새로운 여행 트렌드 입증

(주)다음투어는 지난 2008년 설립해 15여년간 광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여행업체다.



정현지 대표

다음투어를 이끌고 있는 정현지 대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국내 여행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에는 북구청이 편시터 북구 도약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 극복 힐링투어'에 협력여행업체로 선정됐다.

지난 6월 '맛과 멋 미향광주 맛보기'를 주제로 광주호수생태원, 환벽당,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등 힐링이 가득한 역사 관광 코스를 둘러보는 투어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다음투어는 틀에 박히지 않은 유연한 대응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참가

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기존 단체 여행 중심이었던 패키지 여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노멀(no-normal)', '웰니스(Wellness)' 등 여행 트렌드가 변화해 다음투어의 '고객 맞춤형' 운영 방식이 새로운 트렌드를 입증하고 있다.

이 여행사는 소규모 여행, 특별한 체험 등 국내 투어에 집중해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기존 고객들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틸 수 있었다.